

# 2015년 10월 7일

## 세상의 마지막

### 이 될 높은 가능성

#### 심판날 동안의 삶 소책자#3

당신이 이 소책자의 제목을 읽을 때 처음 드는 의문은: "왜 그 날일까?"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이 이미 들은 바, 매우 친숙하게 된 또다른 날짜; 즉 2011년 5월 21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날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심판날로 공포되었다.

우리의 이전 소책자 "영적 심판이 2011년 5월 21일에 시작되었다" 에서 우리는 영적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향에 대해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신 심판, 그리고 세상 교회 단체에 내리신 심판 등이다. 이 것들은 모두 영적인 심판이며, 이 세상에 내리신 영적 심판도 (2011년 5월 21일에 시작된)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적 유형을 따르셨음을 보여준다.

#### 심판의 본질

성경은 2011년 5월 21일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닫으셨다고 가르킨다.

누가복음 13장 24 - 2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성경은 또 하나님이 그 날 내리시는 영적인 심판을 복음의 빛이 꺼지는 현상으로 설명하신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으로 자주 표현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날이 시작되면 이 생수가 피로 변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10,000일째 되는 날이며 또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마지막 파괴와 소멸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되는 특별한 날이다.

#### 2015년 10월 7일은 또한 추수/수장절의 마지막 날이다

2015년 10월 7일에 관해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날이 또한 수장절 (feast of harvest, feast of ingathering)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다. 수장절 (추수를 걷어 모아들이는)은 초막절과 함께 지켜졌다.

레위기 23장 34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월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 14장에서 숫자 1600을 주고, 그것은 이세상의 끝, 마지막 추수 때라고 문맥상에서 언급됐으며, 우리가 2011년 5월 21일 심판날에서 시작하여 1600일을 계산하면, 우리는 이날 (2015년 10월 7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날이 성경적 (히브리) 달력의 수장절 마지막 날에 일치되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하신 모든 소중한 과실을 천국으로 거둬들이시고 그가 구원하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완성하시리라는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을 감히 말하는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ebiblefellowshipworldwide.com**  
**www.ebiblefellowship.com**  
**www.ebible2.com**

**Visit our Facebook page:**  
**www.facebook/ebiblefellowship**

**Also visit our YouTube Channel**  
**www.youtube.com/user/ebiblefellowship1**

**You may send a message, question or comment to:** **ebiblefellowship@juno.com**

**Or write to us at: E Bible Fellowship,**  
**P.O. Box 1393 Sharon Hill, PA 19079 USA**

10,000일째 되는 날이다.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2015년 10월 7일이 모든 다른 날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날짜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15년 10월 7일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과 일치한다. 이날은 히브리 달력으로 7번째 달의 23일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지정하신 날이다.

**역대하 7장 9-10절 제 팔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칠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일 동안 지키니라 칠월 이십 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성회를 지정하셨다. 유월절의 성회는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심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오순절 성회는 성회가 준수돼야 할 바로 그 날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을 참조) 쏟아 부어짐으로 영적으로 이루어 졌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회는 초막절이다. 이 성회의 영적인 이루어짐은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날"이라는 구절은 성경에 오직 여덟 번만 나온다. 그 여덟 번 중 두 번이 초막절을 설명할 때 나온다.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여섯 번의 마지막 날은 이 세상 존재의 끝을 설명하는 곳에서 나온다 (여기에 몇 개의 사용된 예들 들어본다):

**요한 복음 6장 39-40절, 44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위의 구절들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자의 부활과 산자의 들림을 통하여)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날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를 심판하는 때이다. 이날이 마침 2011년 5월 21일로부터 1600일 그리고 교회로 부터 시작된 심판날로 부터 전체적으로

여겨지는 사람 모두를 혹독하게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2015년 10월 7일은 2011년 5월 21일로부터 1600일째 되는 날이고, 그러므로, 시험은 그 날에 끝이 날 것이다.

#### 10,000일의 전체 심판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2015년 10월 7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그의 심판을 완성하는 날이라는 가장 큰 증거 중의 하나는 두 개의 영적 심판 날들의 누적 숫자다. 먼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8400일 동안의 큰 환난 기간 동안 이 세상의 외형적 교회들을 심판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강조한 요한 계시록 14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1600이라는 숫자가 주어졌고, 이 숫자 1600은 숫자 8400과 대단히 잘 조화가 된다. 이것은 마치 장갑에 손이 들어가 꼭 맞는 것과 같다.

8400일 (세상 교회에서 시작된 심판/큰 환난 기간)  
+ 1600일 (세상 전체에 내려지는 심판의 가능성이 높은 기간)  
= 10,000일 (악인에 대한 전체 심판 기간)

숫자 "40"과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 숫자 "10" (또는 100, 1,000 또는 10,000과 같은 10의 배수들)도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숫자 "10,000"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완성 (전부, 모두)이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은 "천산의 생축이 다 내것이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직 천개의 산에 있는 생축만을 소유하고 계신가? 아니면 모든 산에 있는 생축을 소유하고 계신가?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산에 있는 생축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 다시말하면, 그분은 모든 생축의 "전부 (모두, 완성)"를 소유하고 계신다. 심판날의 기간을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는 그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해왔다. 2011년 5월 21일로부터 1600일이, 1988년 5월 21일에 교회로 부터 시작된 심판이후의 날들과 모두 합하면 10,000일이 된다. 2015년 10월 7일이 10,000일째 날이다. 그리고 이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계획과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강력한 후보가 되는 날이다.

#### 2015년 10월 7일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 14장의 심판날의 문맥 중에 숫자 "1600"을 주신 것을 보았다.

우리는 또한 숫자 1600이 매우 흥미롭게 "40 X 40"으로 분해되는 것을 보았다. 추가로, 1600일은 8400일과 합하여 전체 심판날의 기간이 10,000일이 되는 완벽한 조화를 보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15년 10월 7일이 2011년 5월 21일로부터 40일 기간의 40번째로 결론나고, 또1988년 5월 21일 교회로 부터 심판이 시작된 후부터 전체기간이

**요한 계시록 16장 3-4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또한, 복음의 물이 말라버린다는 상징적인 비유가 성경 말씀에 사용됐다.

**요한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쉽게 말하면, 이러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유형들과 인용들 (천국의 문이 닫힘, 해, 달, 별의 빛이 꺼짐, 생수가 피로 변하거나 물이 마름)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일관적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을 끝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2011년 5월 21일에 인간을 구원 하시기를 멈추셨다. 이 세상에 대한 영적 심판의 본질은 사실상 구원이 끝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는 이 세상 어디에서 그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부터 시작된 8400일의 기간이다**
우리는 꽤 오래전 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신약 교회와 회중에게 먼저 심판을 내리심으로서 그의 마지막 심판 계획을 시작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함)은 1988년 5월 21일에 시작되었다.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 달력을 주의깊게 공부 해보면 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기간은 정확하게 23년 (1988년 5월 21일 부터 2011년 5월 21일 까지)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이 23년의 기간은 또한 정확히 8400일 이었다. 2011년 5월 21일이 심판 날로 지정된 여러 중요한 증거중 한가지는 교회에 내려진 23년의 심판 (큰 환난으로 알려진 기간)이 이날에 끝나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내려진 영적인 심판의 기간이 23년이라는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영적 심판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하는 큰 의문이 있었다. 만일 우리가 2011년 5월 21일에 시작된 이 심판이 얼마동안 지속될 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철저히 찾아보니 오직 하나의 진정한 가능성이 있는 날이 드러났다. 2015년 10월 7일이, 2011년 5월 21일에 시작된 심판 기간이 끝나는 날이며,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때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후보임을 성경의 증거들이 가리킨다.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은 1600일 동안 지속된다**
성경 몇 군데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교회에 내려지는 그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외형적인 교회에 내려졌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류 전체에게 심판이 전환되는 때에 관해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심판이 내려지는 세상 종말의 계획이 예레미야서에 설명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앙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뒤에 이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칼 (심판)을 부르시겠다고 선언하신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시작한 심판이 23년간 (8400일) 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있었다. 하지만, 이 지구상의 거민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지속될까?

요한 계시록은 인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세하게 묘사하고있다. 우리는 그 무서운 날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다.

**요한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심판날은 "추수의 때"라고 설명하신다.

**요한 계시록 14장 14-16절**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심판을 추수의 형태로 묘사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추수가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음을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미리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8-39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군은 천사들이니**

요한 계시록 14장의 추수와 세상 끝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가보자. 이 장의 끝맺는 말씀에서 혼치 않은 설명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요한 계시록 14장 19-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갈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 스타디온 (furlongs)에 퍼졌더라**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을 마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힌 것 처럼, 그들의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게 으깨어 버리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성경엔 생명은 곧 피(레위기 17장 11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의 피가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오고 또 1600 스타디온 (영어로 furlongs) 거리 만큼 계속 흘렀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피가 흐른 거리를 알려주셨는지 궁금하다. 1600이라는 숫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날의 일정한 기간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다.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에게서 생명의 피를 짜내기 시작할 때로 부터 그 들의 피가 흐르는 기간 동안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받으며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누군가 "스타디온은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스타디온은 거리를 가리키는 단위이지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은 일관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시간과 관계없는 단어를 시간으로 해석하시는 예를 찾아보기로 하자:

**창세기 40장 8 - 13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이 기록에서 요셉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세 나뭇가지는 사흘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나뭇가지들이 시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나뭇 가지 하나는 하루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가지에 영적인 의미를 적용하셔서 각각 하루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우리는 스타디온이 날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창세기 40장 (다른 성경의 예들도 함께)의 예가 시간과 상관 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단어들어 시간의 단위로 쓰일 수 있다는 성경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1600 스타디온은 1600일로 볼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2011년 5월 21일로 부터 1600일을 더하면, 2015년 10월 7일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시간표가 2015년 10월 7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성경이 이 특정한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을 보완하는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가?이다.

**40 X 40 = 1600 (하나님이 사람을 혹독하게 시험하시는 기간)**
우리가 2015년 10월 7일에 도달하는 1600일의 시간의 경로와 이 날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논의하기 전에 16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중요한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숫자 1600은 "40 x 40"으로 분해 할 수가 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험과 동일시되는 숫자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하나님은 그 기간을 "시험하던 때" (히브리서 3장 8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시험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을 밤낮으로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안다. 성경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숫자 40에 부여하시는 전형적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숫자 40은 시험이나 시련의 상징이다. 이것이 특별하게 의미심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구원하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되는 사람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과 나란히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이 그 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24장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그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아주 중요한 한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3장 11-13절**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성경은 2011년 5월 21일 부터 이 세상의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을 징벌해 오셨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동시에, 숫자 1600을 통하여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는 자들로